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5년 새 2배 ‘깡충’

속도위반 등 과태료 약 379억 원 달해
17개 시도 중 인천 증가세 두드러져
과태료 체납 건수도 9배 가까이 급증

인천의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외국

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72만 8120건이다. 금액은 약 379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7년에 11만 2557건(약 58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20만 2616건(약 107억)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의 외국인 과태료 체납 건수는 2017년 294건, 2018년 501건, 2019년 789건, 2020년 1124건, 2021년 24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

년간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2017년 2114만 6000원, 2018년 3526만 8000원, 2019년 5337만 5000원, 2021년 7073만 2000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조은희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알아볼까”

계양구, 온라인 화상 강의 진행
참가비 무료… 누리집서 신청

인천시 계양구가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가을맞이 온라인 반려동물 강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온라인 줌 화상교육으로 실시하며 오는 26일부터 계양구청 누리집(gyeya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계양구민은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천수의사회 동물행동의학회가 ▲재미있는 견종 탐구 ▲반려견 분리불안 극복하기 ▲노령동물의 질병과 건강관리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의 첫 단계 등의 주제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주제로 반려동물 교실을 운영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휘 기자



지난 21일 인천비전기업협회가 미추홀구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제공

인천비전기업협회, 미추홀구에 1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기부

전달식 진행 뒤 경영간담회도 거쳐

공익법인 인천비전기업협회에서 인천 미추홀구에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와 협회는 지난 21일 기부금·물품 전달식을 진행한 뒤 경영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상황 등 지

역경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엠에스씨 김동훈 대표, ㈜대흥푸드 장순목 대표, 농업회사법인 새싹㈜ 김해경 대표, ㈜세창계미컬 김동원 대표, ㈜람멘 박영숙 전무, 강운공업㈜ 이지형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협회 임원진과 회원사에 감사하다”며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

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비전기업협회는 인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인천시가 성장잠재력 등 삼사를 거쳐 선정한 1137개 업체로 구성된 단체다.
해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 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을 찾아 꾸준히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단체이기도 하다.

윤용해 기자



인천 중구 평생학습도시 현판식에서 김정현 중구청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강후공 중구의장 등 관계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 제공

중구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평생교육포럼 개최

김정현 구청장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 구현”

인천 중구는 월드컵대회의실에서 ‘2022 중구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 및 평생교육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축하하고 평생교육 발전 방안 모색 및 중구평생학습도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김정현 구청장, 강후공 의장과 구의원을 비롯 중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과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등이 참여, 교육 부로부터 중구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축하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수강생과 강사의 선언문을 낭독에 이어 ‘함께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 선포와‘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전망과 사회참여 활동을 주제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는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김

대정 팀장이 좌장을 맡아, 부산교육대 심성보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인천인재평생교육원 김명량 정책연구실장,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배은주 선임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열거를 더했다.
김정현 구청장은“다가오는 100세 시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춰 주민들에게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주민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 모습.

동구 제공

동구,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 실시

구, 예산 5억 투입… 시설물 재배치
테크길, 꽃 조명 설치해 공원 개선

인천 동구는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의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야포전시장의 기존 기암비와 시설물 주변 녹지대를 후문 입구 쪽으로 재배치하는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원 입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야포전시장의 포장 패턴을 전통놀이(오징어놀이, 달팽이놀이, 사방치기)로 입히고 초화원과 테크길, 꽃 조명을 설치해 주민들이 주·야간으로 즐기고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7월 인천시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최종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며, “이달 21일 공사를 본격 착공해 오는 12월 중 완료해 본격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장고개로 3-2공구, 2026년 개통 예정

내년 6월쯤 실시설계안 나올 예정

인천 부평 캠프마켓을 가로지르는 장고개로 3-2공구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캠프마켓 주변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개최된 도시계획국 기자 간담회에서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은 “A 구역에 해당하는 장고개로의 경우 내년 6월쯤 실시설계안이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D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은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토양오염정화를 완

료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고개로 개설공사는 부평구 마장로 제3보급단에서 장고개삼거리를 연결하는 총길이 128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다.
캠프마켓 외 구간인 제3보급단에서 안남로를 연결하는 길이 620m 폭 30m 도로는 지난 2020년 개통했다.
캠프마켓을 가로지르는 3-2공구(660m)는 2022년까지 국방부에서 캠프마켓 환경정화사업을 완료해 2024년까지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반환 일정이 미뤄지며 개통 일정이 미뤄졌다.

박소영 기자